

5·18 마라톤과 ‘25년 우정’ ...“직원·가족 함께 했어요”

농심 호남영업기획팀 가족 완주
빵부장 소금빵·생수 지원 인기

제25회 5·18마라톤대회의 수많은 참가자 중 눈에 띈 단체 중 하나는 농심 직원들이다. 농심은 5·18마라톤대회 첫 회부터 올해 25회 대회까지 함께해온 특별한 관계다. 1회 대회부터 5·18마라톤대회의 대표 간식이었던 새우깡과 생수를 제공해 마라톤 참가자들이 코스를 완주한 뒤 휴식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던 농심은 올해는 새우깡이 아닌 소금빵을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 안전한 행사 진행을 응원했다.

소금빵만 제공한 것은 아니다. 농심 호남영업기획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마라톤에 참가, 건강도 챙기고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구자용 농심 호남영업기획팀장은 “5·18은 전국은 물론이고 광주에서는 가장 큰 역사다. 5·18 정신을 기리는 5·18마라톤대회가 말로 참가자들이 오월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매 대회마다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대회가 열릴 때마다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달리기를 하며 광주시민과 어우러지는 시간을



농심 호남영업기획팀 직원과 가족들이 24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25회 5·18마라톤대회 5.18km 코스를 완주했다.

김태규 기자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농심의 베이커리 스낵 ‘빵부장’ 시리즈 소금빵은 최근 젊은 세대에 인기 많은 소금빵을 모티브로 개발된 빵

다. 배터리를 베이스로 한 빵에 소금을 뿌려, 고소한 풍미와 짭짤함이 조화를 이룬 맛이 특징이다. 소금빵은 사실 일본에서 시오(소금)빵으로 불리던 것이 한국으로 건너온 빵이다. 지난 2022년 본격

적으로 한국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됐고 농심이 지난 2023년 첫 ‘빵부장시리즈’로 소금빵을 출시한 뒤 초코빵과 라즈베리빵까지 선보였다. 구 팀장은 “빵부장 시리즈 소금빵은 소비자들

이 평소 즐겨 먹는 빵을 스낵으로 새롭게 해석했다”며 “5·18마라톤 참가자들이 소금빵을 드시면서 피로도 풀고 즐거운 휴식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다시한번 5·18 생각하는 시간...의미 남달라”

10km 여자 1위 정순연

“작년에 우승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또 왔습니다. 다시 우승하니까 좋네요.”

제25회 5·18마라톤대회 10km 코스 여자부 1위를 차지한 정순연씨(51)는 38분32초11의 기록으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정씨는 지난 2015년 10km 여자 우승자로 올해 다시 1위의 기쁨을 만끽했다.

정씨는 “5·18민주묘지는 눈물나는 곳 아닌가”라며 “어릴때라 5·18을 몰랐지만 대한민국에 살면서 미안함과 가슴아픔을 느낀다. 마라톤을 계기로 다시한번 5·18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돼 의미가 남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작년 3위 기록...올해는 꼭 우승하고 싶었다”

5.18km 여자 1위 김유진

“목표를 이루고 돌아갈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제25회 5·18마라톤대회 5.18km 코스에서 20분53초로 여자부 1위를 차지한 김유진씨(51)는 “지난해 처음 참여해서 5.18km 3위를 했다. 대회의 의미도 참 좋았고 기록을 보니 순위도 욕심낼 수 있을 것 같아 올해는 반드시 1등을 해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는 우승을 목표로 했고, 목표를 달성해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코스가 조금 바뀌면서 어려워졌다”며 “쉽지는 않았지만 우승이라는 결과물을 얻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희생 기리며 달려...와이프한테 상금 줄래요”

5.18km 남자 1위 이재식

“상금은 당연히 늘 응원해주는 아내에게 줄 거예요.”

제25회 5·18 마라톤대회 5.18km 코스에서 17분04초로 우승을 차지한 이재식씨(43·전주)는 마라톤이 생활의 일부인 ‘진짜 러너’다. 매주 전국 각지를 돌며 대회에 출전한다는 이재식씨는 “이번 대회는 5·18을 기념해 열린 행사기 때문에 꼭 뛰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민주화운동을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생각하며 달렸다. 단순한 레이스가 아니라 마음으로 뛰는 시간이었다”며 “상금 20만원의 결에서 늘 응원하는 와이프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원 기자



“스트레스 날리듯 질주...가족과 함께 더 값진 우승”

10km 남자 1위 박홍석

“스트레스 날리듯 질주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광주에서 이렇게 뜻깊은 대회에 참가해 우승까지 하게 돼 기쁩니다.”

제25회 5·18마라톤대회 10km 코스에서 34분52초12로 결승선을 통과한 박홍석씨(37·경남 거제)는 이날 친누나와 함께 광주를 찾았다. 박씨는 “가족과 함께하니 기분도 좋고 우승까지 해 의미도 크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 회사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달리기 통해 해소한다고 했다. 박씨는 “퇴근 후 조깅이나 주말 마라톤대회에 꾸준히 참가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즐기며 뛰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코스는 언덕이



많아 체력 소모가 컸고 중반 이후 페이스 조절이 관건이었다. 마지막 스피트를 제대로 살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10년 전부터 5·18마라톤에 참가하며 광주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그는 “광주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숭고한 헌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며 “그날의 희생과 정신을 되새기며 달렸다. 억압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용기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어두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완주 후 받은 상금 30만원은 가족들에게 쓰겠다. 무엇보다도 이 대회에 참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선물이다”고 덧붙였다. 조혜원 기자

“5월 18일 생일, 5·18마라톤으로 뜻깊게 기념”

10km 강성현씨 5.18km 정세림양 “광주정신 되새기며 뛰어 자부심”

제25회 5·18 마라톤 대회에는 5월 18일이 생일인 참가자가 6명이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5.18km 3명, 10km 3명으로 이들은 모두 각자가 신청한 코스에서 완주에 성공하며 생일과 함께 5·18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10km에 참가한 강성현씨(33)는 “5월 18일은 제 생일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기념일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다. 광주 시민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 참가다. 지난해는 10km 코스를 완주했지만 올해는 보다 상징적인 5.18km 코스를 선택해 또 한 번 의미를 시간을 가졌다.

강씨는 민주노총 국민연금광주전남지회 소속으로 회사 차원에서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동료들과 출전하게 됐다. 강씨는 “광주 정신을 되새기며 뛸 수 있다는 건 큰 자부심이다. 5월 18일 만큼은 나 자신을 위한 생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날이다”며 “당시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달리면서 되새기고 싶었다”고 밝혔다.

평소 체력 단련에 관심이 많다는 강씨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참가해 팀워크도 다지고 싶었다”며 “시민들과 함께 달리는 이 순간이말로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 팀에서 1등으로 완주하



강성현씨



정세림양왼쪽과 오빠 정현군

고 싶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이번 대회가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광주의 정신이 전국을 넘어 세계로 알려지면 좋겠다.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꼭 참가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5월 18일 생일자중 최연소로 5.18km에 참가한 정세림양(9)은 어렵게 완주에 성공했다.

정양의 이번 대회 참가는 세상 터울 오빠 정현군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정현군이 마라톤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온가족이 함께 마라톤대회에 참가를 신청, 정세림양도 5.18km에 도전했다. 특히 정양은 생일이 5월 18일이어서 5·18마라톤대회 참여에 의미가 컸다.

오빠 정현군은 함께 출발했던 엄마를 뒤로 하고 스피드를 올렸고 생각보다 빠른 시간(30분)

에 도착해 가족들을 놀라게 했다. 완주 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면서 의젓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세림양은 대회 참가에 의의를 두고 어렵게 결승선을 통과, 오빠와 함께 완주메달을 목에 거는 기쁨을 누렸다.

정양은 “처음 참여하는 마라톤이었고 결승선에 도착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며 “오빠가 30분만에 결승까지 뛰어와서 완주 메달을 걸고 있는 걸 보니 더 빨리 달리지 못할걸 후회했다”고 털어냈다.

정현·세림 남매는 완주 메달을 받은 뒤 이름과 기록을 메달에 각인하며 이번 5·18마라톤대회 참가 의미를 새긴 뒤 “5·18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내년 대회에 다시 참가해서 더 좋은 기록을 내보겠다”고 다짐했다.

조혜원 기자